

멀티플시티 프로젝트-도시와 함께하는 미술

제라르도 모스퀴에라

뉴욕 신현대미술관 큐레이터

부산비엔날레 심포지움에서 나의 발제는 리치 포터의 멀티플시티(ciadadMULTIPLEcity) 프로젝트에 관한 비디오 상영을 포함한다.

나는 아드리엔느 사모스와 공동으로 국제 도시미술 프로젝트인 Arte>Panama 2003을 기획하였다. 이와 관련된 글은 암스테르담 KIT에 의해 발간된 도록의 서문을 수정한 것이었다. 사모스와 공동으로 편집된 이 책자는 단순한 행사의 의미를 넘어 현대의 도시공간,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지역에 관한 보편적인 질문을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멀티플시티 프로젝트는 파나마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도시미술 관련 행사에서는 종종 생각이 앞서고 실제인 도시는 나중에 고려된다. 도시는 현장 즉 의지, 에너지, 조직, 조직의 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는 특정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부터 가치 있는 작품이 생산될 수 있으며 도시와 미술이 상호작용하는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개념은 포괄적인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파나마시가 가진 특징은 우리를 매료시키며 우리는 선구적인 작업으로 이 도시와 관련이 있는 미술프로젝트를 계획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민간의 문화에 대한 지원의 전통이 없는 환경하에서 시작되었으며 현대미술 진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미하다. 그러므로 파나마시의 시도는 다른 도시에 자극이 되었으며 한편으로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파나마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나 사회조건에도 불구하고 파나마시에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 한 곳의 근·현대 미술관이 있을 뿐이며 어떠한 문화센터나 대안공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곳에서 국영 양조회사 후원으로 1992년 이후 지역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이곳처럼 배타적으로 상업중심적이며 지배계급이나 국가가 문화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시는 없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일단의 예술가들은 파나마시, 지역의 공동체, 상상력, 문제, 꿈, 선입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도록 요청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거리에서 사람들과 공명할 수 있는 미술, 조그마한 국가의 복합적이고 복잡한 수도에서의 삶이나 역동성과 조울할 수 있는 미술작품의 생산을 의미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파나마시는 이러한 규모의 복잡다단한 프로젝트를 소화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파나마의 역사에서 시각예술 분야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성공이나 한계가 동시에 조건지어졌다.

파나마의 제도적 취약점이 문제이나 이 점이 사회적 수준에서 도시미술 행사를 개최해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보수적이며 고루한 미술계 그리고 매우 한정된 현대미술 애호가를 가진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러한 행사의 개최는 단지 미술계 내부의 행사를 넘어서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업의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고무적이다.

멀티플시티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파나마의 젊은 작가들, 비평가, 건축가, 그리고 저술가 등이 최근 이 도시를 재발견하고 특징적인 도시시학을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는 많은 파나마 지식인들의 관심과 작업을 교차시킬 프로젝트를 안출할 수 있는 호기를 의미한다. 새로운 세대는 파나마에 만연한 지루함과 전통에 얽매인 분위기를 변화시키며 세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이들 파나마 젊은이들은 (외국 거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작품에 가치와 영감을 불어넣을 기회인 멀티플시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파나마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인 진화의 일부이다. 이 행사는 축제제로서 외부로부터 도입된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이 행사는 최근 파나마에서 진행 중인 혁신의 노력을 촉진시키며 비판적이고 진보적이며 활기에 찬 미술의 탐색에 이정표가 되고 있다.

파나마는 매우 협소한 지협을 사이에 둔 전략적 위치로 인해 두 대양과 여러 세계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화 바람이 지구촌을 휩쓸기 이전부터 이미 세계화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남·북아메리카의 토착 동물이나 식물들조차도 이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다. 세계의 관문, 항공운송이나 해운의 중심, 카리브해 연안국, 중남미 지역 광통신의 중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 온갖 종류의 기업의 천국으로서 파나마는 고도로 국제화된 도시이며 운송과 물류의 축도를 보여준다.

파나마시는 중국의 여러 도시들처럼 무에서 탄생한 서비스산업의 싹을 중심지가 아니다. 파나마시의 거칠고 오랜 역사는 스페인 지배하의 15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쪽으로는 태평양, 북쪽으로는 미국이 통제하는 파나마 운하지역으로 막혀있는 파나마시는 좁은 콘 모양의 협지를 따라 발전해왔으며 북쪽을 향해 성장하였다. 전체인구가 300만이 채 되지 않는 국가에서 100만 명이 파나마시에 거주하며 인구에 비례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파나마시의 스카이라인은 싱가포르나 홍콩과 흡사하며 중남미 국가들의 소규모 수도들과 대조를 이룬다. (파나마시는 마천루가 밀집한 세계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통신과 전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로서 파나마는 다른 대도시처럼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도시이다. 다양한 파나마족과 함께 힌두족, 아랍인, 유대인, 중국인, 한국인, 그리스인, 일본인, 스페인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들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며 드물게 이 열대도시의 관습에 적응하고 있다. 파나마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 중에서 모스크, 웅장한 힌두사원, 유대교회, 한국교회, 산테리아 성소, 19세기에 세워진 중국법당 등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분열, 이중교배, 대조 등의 복합적인 역동성으로 인해 이 도시는 독특한 외양을 갖고 있다.

교통로 상에 위치한 파나마는 통과에 이용되는 운하가 있으며 통과시에 구경이 가능한 도시이다. 멀티플시티는 파나마시를 예술작품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며 이 도시에 새로운 면모를 부여한다. 이 예술행사는 여러 나라에서 온 아홉 명의 예술가들(Francis Alÿs & Rafael Ortega, Ghada Amer, Gustavo Artigas, Yoan Capote, Gu Xiong, Cildo Meireles, Juan Andrs Milans, Jess Palomino)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세 명의 토박이 파나마 작가들(Brooke Alfaro, Gustavo Araujo, Humberto Vlez)과 함께 통행자로서 도시에 반응하며 작업한다. 멀티플시티는 사회 예술적 연구의 결과이거나 외국작가들에 의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상호작용적인 경험이 아니라 교통로, 분절, 신속한 이동 등 파나마시가 갖는 특징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다. 작가들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하며 직설적인 작품과 동시에 전위적이며 심지어 실험적인 도시미술 작품을 창조해야 할 요구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층위를 가진 작품을 통해 소수의 전형적인 엘리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 광범위한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탐색해야 한다.

우리는 이전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형식의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재능을 근거로 참여 작가들을 선정하였다. 몇몇 경우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것과 부합할 경우 과거의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하기도 했으며 초창기 프로젝트를 참고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가들은 파나마시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들만의 작품을 창조하였다. 외국작가들은 작품계획을 위해 미리 도시를 방문하거나 작품제작을 위해 재차 방문하기도 했다. 그들은 도시의 유혹이나 중대한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도시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양상들에 반응하였으며 적극적인

로 연관을 맺어나갔다.

도시로부터 미술로 이동하는 도시프로젝트, 다시 말해 도시가 재료처럼 다루어지고 작품의 주제나 배경이 매우 주관적이며 폐쇄적인 도시프로젝트와 대조적으로 멀티플시티를 위해 제작된 작품들은 도시로부터 미술로, 미술로부터 도시를 향해서 순환적으로 움직이도록 연출되었다. 일부 작품은 개입을 요구하나 일부는 관람객의 참여를 배제한다. 그러나 이 두 유형의 작품들 모두 작가의 작업방법과 함께 도시나 도시인들과의 다양한 대화를 이끌어낸다. 일정기간 동안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들은 2003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만 전시되었다.

우리는 비중앙집중적인 전시기획 방식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외국작가들에게는 소통을 돕거나 작품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제공할 국내작가 한 명이 배정되었다. 국내작가들은 외국작가들의 체류일정 내내 직접 대면하고 협력을 제공할 조력자로서 활동하였다. 큐레이터로서 우리는 계획단계부터 전시의 조정, 통제 일반적인 안내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전시기획이나, 혹은 실질적인 이유에 근거해 일종의 전략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대단히 복잡하며 힘든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우리는 구조적인 결함, 제도적인 지원의 부재를 보상해 줄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작품의 비중앙집중화는 프로젝트를 완수할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동시에 초청 작가들이 도시나 도시의 환경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었다. 큐레이터로서 우리는 행사의 이념을 분석하고 도시에 대한 개관을 제공하며 각각의 작품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러나 국내작가들이 외국작가들의 핵심장소 방문이나 시내관광을 안내하였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멀티플시티 프로젝트를 대규모의 비형식적인 워크숍의 형태로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파나마의 작가, 학생, 교수, 디자이너들은 더 많은 전문지식이나 서로 다른 인생경험을 가진 동료들과 협력하였다. 시작단계부터 우리는 예술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가에 필수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행사의 교육과 관련된 의제의 일부로서 초청 작가들은 작품을 슬라이드로 소개하였으며 여러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였다. 도시거주자들이 그렇듯이, 이러한 상호교류를 통하여 외국초청작가와 국내작가들 모두 보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젊은 파나마 작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립된 자신들의 환경을 벗어나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에 초청된 국내·외 작가들 사이에 매우 친밀한 관계와 우정이 형성되었다. 나란히 지근거리에서 작업하며 그들은 확고한 예술적 결정을 내리며 초창기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예술가, 학생, 디자이너, 건축가, 교수 등이 작품창조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였다. 니카라구아의 가장 탁월한 예술가인 페트리시아 벨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작업할 10여명의 젊은 작가들과 함께 파나마시를 관광하였다. 그들의 참여는 프란시스 알리와 라파엘 오르테가의 작품에서 결정적인 요소였다. 공동작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젊은 작가들이 각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팀과 함께 방문 작가들과 접촉하는 정도였다.

다른 결과는 행사의 목표와 일치하여 프로젝트가 도시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국외자의 접근을 벗어나 도시의 부차적인 측면에 몰입하는 작가들에 기인한다. 동료들이나 각 참여 작가의 주변 인물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이러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프로젝트의 만족할만한 세 가지 결과들은 첫째 새로운 경험, 정보, 전문지식의 획득과 같은 교육적 이익, 둘째 현대미술의 관점에서 도시나 공동체와 공동 작업을 통해 형성되는 일련의 의미와 함께 작품의 창조에 이용되는 기술을 포함한다. 세 번째 성과는 두 번째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도시미술에서 가장 광범위한 현대미술의 작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작품의 가치나 이와 관련된 토론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상호 간의 조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오늘날, 이 작품들이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미술의 복잡다단한 문제에 관해 그럴듯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가 이의 지역적 양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이를 통해 환기된 관심은 프로젝트의

지역적 양상을 초월한다.

멀티플시티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주변의 환경과 보다 능동적으로 교류하고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긴밀한 방식으로 보다 열린 다양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작업을 고취시키는데 성공적이었다. 작가들은 작품의 영역을 확대시켜주는 경험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작품들은 “파나마시처럼” 보였으며 지역미술과 “고급”문화 사이를 분할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풍부한 예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들 작품들은 활발하게 소통하며 비판적인 관점을 암시한다.

시각예술은 맹목적으로 숭배되는 작품, 대단히 활발한 사치품 시장 그리고 학계의 수동성과 신비주의에 기인하여 고도로 전문화되고 이지적이며 배타적인 영역을 형성한다. 더군다나 대중매체가 문화를 비정치화하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며 점차 영역을 확대해나감에 따라 시각예술의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공의 영역이 점차 잠식되는 현상과 동반해서 나타난다.

현대미술 작업의 자유와 장르초월주의, 현대미술 관행의 융통성과 “현실”을 향한 접근은 보다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행위로 진화할 수 있다. 우리는 미술이 대중문화, 해학, 장대한 광경 등의 영역을 향해 열려있으며 이를 통해 의미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 모두는 “구경거리가 많은 사회”에 깊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문제가 많으며 논쟁을 촉발하고 심지어 급진적이며 전복적이기도 한 이러한 영역으로 미술을 확대시킴으로써 이익을 얻지 않는가?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전시의 본질을 상실할 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술은 혼성의 형태를 이용하고 스스로의 회로망과 미적-상징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고급” 장르와 “저급” 장르 사이의 관계항과 기법의 단순한 포스트모던식 교환을 뛰어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도시미술은 창조적이며 총체적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관람객을 창출하기 위해 두 영역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창조적인 작업은 특별한 공동체의 환경에서 출현하며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과 도시가 기능하는 기본 구조나 관심에 대한 의문과 거부에서 부터 비롯된다.

멀티플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작품들은 위에서 표현한 이분법 내에서 모순을 암시하고 있다.¹⁾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비판적이며 미적인 감각에 대한 이질적인 실험을 통해 창조되었다. 이들 작품들은 현대적 작업영역(비디오, 사진, 개념미술, 차용, 해프닝, 행위미술, 참여미술 등)과 연예산업적 요소(아르티가스, 밀라네스, 알파로, 벨레즈), 광고(아라우조, 아메르), 토착문화(아메르, 벨레즈, 팔로미노, 구사이웅), 대중매체(알파로, 알리스)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되었다. 도시미술로서 이들 작품들의 가치는 하나에 다른 하나를 혼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빚어내기 위한 언어와 매체의 유동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다양한 사회적 매개물과의 접촉을 통해 왜곡될 수 있다.

때때로 이들 작품들은 “너무” 잘 작동된다. 가장 극적인 경우는 가다 아메르의 작품이다. 공무원의 부패를 비판하는 입간판 중의 하나가 파나마 감사원 앞에 세워진다. 감사관은 이 작품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는 간판을 세우도록 허가한 시청에도 청원하였다. 그들은 우리와 접촉하여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으며 현행법에 의하면 그 곳에 입간판을 세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했다. 며칠 후 두 개 이상의 간판이 사라져 버렸다. 정치적 부패를 반대하는 게시판이 중앙로 공원에 세워졌으며 폭식을 경계하는 간판은 맥도날드 앞에 설치되었다. 이들 입간판은 크기나 무게 때문에 설치를 위해선 여러 명의 인원과 중장비가 필요하며 해체를

1) Bennett Simpson: Multiple City, Arte Panama 2003, in Third Text, vol. 17, no. 3 pp.288-294

위해서는 트럭이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라진 간판은 분명 단순히 파괴되었거나 약탈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이들 작품들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의 경우를 상기해보면 이러한 부정행위는 표면상으로만 자유스러운 사회의 억압적인 측면을 보여주며 이는 파나마를 20년 이상 억압해온 일종의 군사독재와 조용하는 사고방식이나 도식을 보여준다.²⁾ 아메르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자신의 작품의 의미를 증명해준다고 생각했으므로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우리가 보기에 멀티플시티 프로젝트의 가장 커다란 실패는 도시지역의 여러 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지 못한 무능력에 있다. 조직적인 구조의 부재, 이러한 종류의 행사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행정적인 문제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해 전시기획에 손실을 초래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학교, 대중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여러 조직들과 정보교환, 참여, 논쟁 등을 위한 견고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작품과 작가, 도시인들과의 대화는 훨씬 풍부해 질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일반대중이 참석 가능한 협의회나 프로젝트를 보도한 언론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의해 보완된다. 그러나 문화적, 교육적 관점에서 보다 많은 것들이 행해져야만 한다. 미술작품 자체는 도시와의 관계에서 도시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메시지를 확산시키거나 강조하는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21세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도시문제이다. 도시의 역동성은 이미 전세계의 사회와 문화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술과 도시의 관계는 아직 충분히 진화하지 않았으나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예술작업이 실행되어야 할 방향을 암시해 줄 것이다.

2) 파나마에서 제도화한 전체주의나 아메르 작품의 운명, 그리고 CiudadMULTIPLEcity 참여작가들에 대한 억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볼 것.

Lina Vega Abad: Entre la anarquía y el autoritarismo, Panama, March 2003, p. 6A